



CHANEL

FINE JEWELRY

BRIDAL COCO CRUSH COLLECTION

BRIDAL.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332-2700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7
vol.164




ROLEX

PLENITUDE DEUXIEME **P2** DEEPER AND BEYOND



광고, 자나신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When Dom Pérignon blesses its Vintage with a second life.



Dom Pérignon
♣

OBJECTS COME ALIVE





Style 조선일보

Issue.164 October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원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4 **YOKOHAMA TRIENNALE 2017**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굵직한 현대미술 행사가 유난히 많이 열린 아트 생태계의 빅 이어(big year)다. 최근 약 15년에 걸쳐 3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 '트리엔날레(triennale)'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 16 **UTTERLY FIRM** 데일리 워치로 사용해도 자칫지 않는 스틸 워치의 견고한 매력.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컬렉션의 스틸 버전을 소개한다.
- 18 **NEW ESSENTIALS** 수년 후 꺼내 입어도 우아하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잃지 않을, 당신이 투자해야 할 웰메이드 남성 아우터 4.
- 20 **PASSION OF THE ART** 롤렉스는 '롤렉스'다. 그 이름만으로도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존재. 과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계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롤렉스의 열정은 시계 제조뿐만 아니라 전세계 문화 예술에도 여실히 녹아들었다.
- 24 **BAG CRUSH** 가장 매력적인 도발. 2017 F/W 시즌 빅 브랜드의 잇백(it bag) 컬렉션.
- 30 **HER TIME IN PARIS** (스타일 조선일보)가 패션쇼가 한창인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펼쳐진 오메가(Ω) Her Time)전에 참석해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직접 확인했다.
- 32 **FABULOUS APPEAL** 한눈에 봐도 브랜드를 캐치할 수 있을 만큼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DNA와 개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번 시즌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2017 F/W 슈즈 컬렉션.
- 33 **THE MEMORABLE MOMENTS** 80시간 동안 지속되는 뛰어난 무브먼트를 장착한 티쏘의 컬렉션. 그 자칫지 않는 힘을 파워메틱 80이라는 캠페인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34 **THE EVOLUTION OF CLASSIC**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모델들이 기존 클래식의 엄격함을 벗어던지고 한층 자유분방한 모습을 선보인다. 빛의 노출에 따라 렌즈 색상이 변하는, 고도의 렌즈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모델부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아이웨어까지, '클래식의 진화'를 콘셉트로 한 레이벤(Rayban)의 2017 F/W 키 컬렉션을 만나보자.
- 35 **SPORTIVE DRESS-UP** '마운틴 클라이밍'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액티브한 무드로 선보이는 랭방스모츠의 뉴 컬렉션. 암벽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컬러를 럭셔리하게 풀어내 남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 36 **PERFECT PROTECTION** 가을이어서 자외선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외부 활동이 늘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을 피부는 여름 피부 못지않게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장대 위에 꼭 챙겨두어야 할 가을 자외선 차단제 7.
- 37 **EDITOR'S PICK** 뷰티 신제품으로 가득 찬 풍요로운 가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테스트해본 뷰티 리스트.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uedon



포토그래피 박진주

Jewel
HEART TO HEART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을 이야기하는 하트 모터브 주얼리.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 골드 소재에 유연한 형태를 조각한 큐오레 네크리스, 핑크 골드와 레드 컬러 커널러전 원석을 다룬 하트 모터브 큐오레 네크리스 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핑크 골드와 레드 컬러 커널러전 원석을 다룬 하트 모터브 큐오레 네크리스 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핑크 골드와 레드 컬러 커널러전 원석을 다룬 하트 모터브 큐오레 네크리스 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로즈 골드 소재로 유연하게 하트 모터브를 표현한 엘사 파페티 오픈 하트 펜던트와 브레이슬릿 각 2백만원대 모두 **타피니**, 에디터 **배이진**

포토그래피 박진주



Beauty
EYE-DENTITY

첫인상에서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눈가를 사수하라. 더욱 크고 또렷해 보이는 눈매로 만들어줄, 뷰티 빅 브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 케어 신제품.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직 눈가를 위한 갈색 쉐인,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퍼어 컨센트레이트 이트 매트릭스**를 소개한다. 시샘하고 또렷한 눈매를 위한 갈색 쉐인 아이 에센스 크림으로, 풍부한 영양과 이노기제는 특별한 텍스처가 특징이며, 잔주름과 굵은 주름, 디프라인, 부기 등 눈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화의 징후를 차단해 눈가는 물론 얼굴 전체의 생기를 되찾아준다(15ml 10만원대). 청정한 수도원에서 빚어낸, 눈가 피부에 생명을 선사하는 **프리쉬 크림 앙시엔트 수프로틴 아이 세럼**은 지난 출시된 크림 앙시엔트 수프로틴 페이스 세럼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프레스쉬 첫 번째 아이 세럼이다. 자카나무 껍질 추출물과 열대 식물 성분의 귀한 재료를 정교하게 블렌딩해 눈가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한다(15ml 26만원대). **시슬의 시슬로아 펠리그라 양티아주 아이 앤 리퍼어 크림**은 기존 시슬로아 아이 크림에 항노화 노화까지 케어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접목해 탄생시킨 제품이다. 생체 리퍼어 연약한 눈가 피부에 항노화 케어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크림으로, 눈가의 주요 고안인 주름과 탄력 저하, 부기, 디프라인 뿐 아니라 입 주변의 건조함과 주름을 완화해준다. 세안 후 크림을 바르기 전, 함께 제공되는 마사지 롤을 이용해 눈가와 입가에 마사지를 해주면 제품의 흡수력을 돕고 눈가와 입가의 탄력을 살려준다(15ml 22만원). 연약하고 민감한 눈가를 관리하는 새로운 아이 케어 제품 **상하이 로즈 드 베이 아이 리프리트**는 로즈를 베이스로 페르마인 자카나무 추출물과 귀화 추출물 등 89.4%가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켈 크림 텍스처로 눈가에 바른 후 강력한 보습 효과와 함께 활성 성분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8ml 13만원대). **SK-II R.N.A 파워 아이 크림**은 피부 본래의 리프팅을 도와주는 능숙 펩타이드 에센스로 완성해 모든 각도에서 빈틈없이 출몰하게 차르리는 눈가 탄력을 선사해 준다(15g 13만원대). 에디터 **이재민**

Fashion
BRING UP ART

우리에게 익숙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파리 패션 위크 기간 동안 패션 피플들의 집결지인 마레 지구에 팝업 스토어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의 신흥인 아티스트 컬렉션 첫 번째 버전을 선보였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국내 브랜드 최초로 세계 패션 트렌드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의 편집숍 골리프에 입점한 데 이어, 파리지역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예술의 중심지 마레 지구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고 글로벌 라인 전략 인 아티스트 에디션의 첫 번째 컬렉션을 2018년 1월까지 판매하는 것. 이 의미심장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아티스트 에디션을 선보일 작가는 프랑스의 유명 아트 디렉터이자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불리(BULY) 1803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램단 투아미(Ramdane Touhami)다. 파리와 런던을 오가는 여행을 주제로 헤지스의 클래식한 감성을 풀어 냈는데, 부드러운 캐시미어와 풍성한 울 소재, 미묘하고 화사한 색감의 여성복, 도톰한 셔츠, 오버핏 코트까지 총 1백 가지 스타일을 선보인다. 팝업 스토어 장소 역시 매우 특별한 곳에 위치하는데, 화려한 별이 들어오는 고즈넉한 공간에 위치한 헤지스의 마레 지구 팝업 스토어(45 Rue Saintonge 75003 Paris)는 근대 조각의 시조인 오귀스트 로댕이 작업하던 아틀리에이다. 아티스트 에디션을 진열한 작은 정원은 로댕이 작품을 찍어내는 거푸집이 위치했던 곳으로, 예술적 영감이 가득 담긴 장소다. 매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헤지스의 아티스트 컬렉션의 다음 버전을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이진** 파리 현지 취재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가을바람 타고 온 스마트 가기의 유혹

기능이 한층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상큼한 디자인으로 단정한 스마트 기기들이 가을을 물들이고 있다. 일상의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스마트 패션(smart fashion)' 미학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신제품을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최신작 갤럭시 노트8을 선보였다. 울진강은 카우와 베젤은 최소화했다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입혀 역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6.3형 화면을 자랑하는 데다 1천2백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를 꾀한 갤럭시 노트8은 미드나이트 블랙, 오키드 그레이, 메이플 골드, 딥 씨 블루 등 총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소니 코리아는 파스텔 톤의 은은한 색상이 매력적인 'h ear 2 시리즈' 헤드폰과 이어폰 5종을 새로 내놓았다. 2015년 가을에 나온 h ear 시리즈는 강렬한 원색이 돋보였는데, 이번에는 h ear 2 시리즈는 단순이 있는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 컬러가 특징이다. 호라이즌 그린, 트와일라잇 레드, 그레이시 블랙, 페일 골드, 문릿 블루 등 다섯 가지 색상이 있다. 소니 코리아는 또 35g의 무게에 부드럽게 휘는 소재를 사용해 목과 어깨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무선 넥밴드 이어폰 W-C400도 선보였다. 독일 오디오 브랜드 젠하이저의 한정판 마이크도 눈길을 끈다. 유수 음악계 거장들이 애용한다는 콘덴서 마이크 '노이만 U87'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5백 대만 한정판으로 제작한 U87 로디움(Rhodium) 에디션이다. 희귀성에서 금을 능가한다는 로디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량은 20대. 가격은 4천5백99US달러(부가세 미포함). 판매 창구는 지노프로(http://www.zinopro.com). 이 밖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외함의 5만원대 펜 태블릿 '원바이와콤(OneByWacom)'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마켓 11번가 등을 통해 단독 선보인 이 제품은 무게 250g의 무건조지 펜으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정밀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Exhibition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개인전 (All in All)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현대미술계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 개인전 (All in All)이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 삼청로에 있는 갤러리 현대(galleryhyundai.com)에서 열린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갤러리 현대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의 근작부터 2017년 전부를 위해 제작한 신작까지 총 30여 점의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평생을 걸쳐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을 탐구해온 작가 크레이그-마틴은 194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예술대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면서 개념미술, 미니멀리즘, 팝아트 등 현대미술의 정성기를 경험하고, 1966년 영국으로 이주해 20세기 후반 세계 미술계의 핵으로 떠오른 'yBa' 작가들을 양성한다. 크레이그-마틴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을 소재로 삼되 굳이 다뤄지지 않아 감각한 형태와 밝고 강렬한 색으로 담아내는 회화 작품이 연상되는 작가다. 2000년대 이후로는 캔버스가 아닌 알루미늄 판을 사용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작품 역시 노트북, 아이폰, USB, 전구 등 속속모임 있는 요즘 소비문화를 반영하는 일상의 사물을 단순화된 이미지로 자주 등장시키는데, 사실 오묘하게 재현해내는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선과 면, 색 같은 미술의 기본 요소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크레이그-마틴은 "사물이 아주 간단하고 투명해, 더 이상 쫓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거부하고 한다"라고 설명한다. 관객들이 감각적 체험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제적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문의 02-2287-3500 에디터 **고성연**

www.brunellocucinelli.com

Nature is full of infinite causes
Leonardo da Vinci

플로렐 실드 블라우스 2백12만원 발매다노.

독특한 무늬가 돋보이는 선글라스 40만원대
엠포리오 아르마니 by 루스티카 코리아.

반트자 굽도
미들 이안팅
가려 미팅 디폴.

메종의 아이 콘으로 자되 깊은 거름대에
팬더 코티스를 사용한 플러쉬.
20.5x13cm, 2백99만원 가격미요.

타타르의 민트 그린 힐 신발
1백1만원 발매다노.

클래식 체크와 함께 세브론, 플라워 등 화려한 패턴의 향연,
울가을엔 과감한 컬러와 함께 시즌키 패턴과의 믹스 매치를
즐겨볼 것.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나비 모티브 다이얼이
돋보이는 드 빌 프레스타피지
버티클라이 워치 33만원대 오메가.

블랙 &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의
룩스 퍼 키 링 12만원대
실버토레 페라다노.

자크제그 패턴이 특징인
미니백, 17x13cm,
1백70만원대 실버토레
페라다노.

나비 자수가 포인트인 트윈드 체크 스커트 1백5만원 구찌.

가려미팅 디폴
프린트 어우러진
프린트 힐
가려 미팅 디폴.

체코의 유명인물이
피어는 패션 디자이너는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인물.
100ml, 112만원 발매다노.

질러놓은 실드 트윙들 스카프 20만원대 에르메스.

구찌 1577-1921
발렌티노 02-2015-4653
지마추 02-6343-9469
가르띠에 1566-7277
루스티카 코리아 02-501-4436
다울 02-3480-0104
바버리 080-700-8800
자향시 02-517-7560
플기리 02-2056-0171
에르메스 02-542-6622
에트로 02-3443-1805
프라다 02-3218-5331
오메가 02-511-5797
실버토레 페라다노 02-3430-7854

BRUNELLO CUCINELLI





for him
Selection

이번 시즌 유스 컬처 트렌드를 즐기려면, 체크와 도트, 카무플라주 등 패턴을 활용해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로고 패턴을 새긴 신들라스 60만원대 루이 비통.

트윈드 컬러 세로 배색의 리프스탑 부츠 1백40만원대 구찌.

트윈드 컬러 세로 배색의 리프스탑 부츠 1백40만원대 구찌.

대 C 로라 케이트 로라 2백80만원대 에르메스.

브랜드의 상징인 모노그램 로고 패턴을 새긴 신들라스 60만원대 루이 비통.

가죽 코팅 상반으로 해 빈 패턴을 광택 도장 68만원대 에르메스 by 10 크로스 코오.

레이어드 목으로 연출하기 좋은 울 소재 블루투스 가격 미정 프라다.

타탄체크와 레더가 어우러진 지갑 69만원 로에베.

에나멜 패턴팅 기반으로 곱을 디자인 위에 표출한 스텐다르에스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큐브 패턴이 문코이는 어린 케이스 20만원대 파메트 이룬다 by 분다삼.

브랜드 시그니처 패턴 스텐다르에스 프로그래밍 캡 모자 19만원 오로 화이트 by 분다삼.

드림 패턴의 원단 102만원 프라다.

카무플라주 패턴의 하이힐 스니커즈 1백19만원 지형사.

큐브 패턴이 어스톤의 반지 가격 미정 보타가 베타타.

원단 주 스웨이드 패턴 케이스 28x35cm 2백40만원 루이 비통.

- 발리 02-3467-8935
- 구피 1577-1921
- 까르띠에 1566-7277
- 에르메스 02-542-6622
- 분다삼 02-3444-3300
- 롤 포드 02-6905-3534
- 로에베 02-6905-3470
- 빌렌티노 02-2015-4653
- 루이 비통 02-3432-1854
- 프라다 02-3218-5331
- 지형사 02-517-7560
- 보타가 베타타 02-3438-7601
- 10 크로스 코오 02-3018-1010

오픈 칼라 디테일의 체크무늬 블루투스 4백40만원 빌렌티노.

스페르미노 유원성 아사르테 아세팅 에디터 이자진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Yokohama triennale 2017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굵직한 현대미술 행사가 유난히 많이 열린 아트 생태계의 '빅 이어(big year)'다. 최근 약 15년의 세월이 걸쳐 3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 '트리엔날레(triennale)' 전시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관객 친화적인 콘텐츠는 무게감이 남다른 미술 담론이나 화려한 규모를 내세우는 블록버스터급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기면서 예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연대를 다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나름 주목받을 만하다. 특히 21세기 들어 창조 도시로 새롭게 꽃피운 아름다운 항구도시 요코하마가 무대라는 점은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아트 생태계에는 유독 '트리엔날레(triennale)', 다시 말해 3년마다 열리는 현대 미술 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0년 니가타 현의 산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시작됐고, 이듬해인 2001년에는 도쿄 인근의 항구도시 요코하마를 무대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Yokohama Triennale)'가 막을 열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혼슈 중부의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와 요즘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예술의 섬' 나고야를 비롯해 가가와 현 세토내해(瀬戸内海)에 모여 있는 여러 섬을 아우르는 대규모 트리엔날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Setouchi International Art Festival)'가 각각 생겨났다.

올해는 6회를 맞이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펼쳐지고 있다. 도쿄에서 지하철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요코하마는 2년 뒤면 개항 1백6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항만도시로, 지리적 이점을 살린 무역뿐만 아니라 공업도 발달해왔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문화, 예술, 관광의 DNA를 갖춘 '창조 도시'로도 거듭나고 있다. 그 창조적 행보에는 현대미술을 매개체로 지역 주민의 연대를 다지고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문화적 플랫폼 역할을 해온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지분도 분명 있다. 여름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8월 4일에 개막해 11월 5일에 석 달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봤다.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 프로젝트

고령화사회에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황폐해진, 그래서 인적 뜬해진 시골 마을이 현대미술과 함께 생기를 되찾는 '재생의 미학'. 에치고쓰마리나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바로 이 같은 예술을 토대로 한 지역 재생이라는 맥락에서 꽤 빈번히 인용되는 사례다.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맞지만,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결이 좀 다르다. 최

신식 고층 빌딩과 개항 당시의 서양식 건물 등 근대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전시 컨벤션 사업을 통칭하는 이른바 '마이스(MICE)' 산업이 꽤 발달한, 인구 3백70만 명이 넘는 꽤 크고 인기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요코하마는 벅추 브랜드 기린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변화와 활기를 갈구한다는 점은 같다. 요코하마는 도쿄의 위성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공업 지대 이미지를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항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 창의성이 강조되는 핵심 분야의 인재와 콘텐츠에 투자해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유럽 등지에서 이미 설득력을 얻고 있던 '창조 도시론'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04년 요코하마 시 차원에서 밀어붙인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 정책이다. 슬럼처럼 낙후된 원도심의 일부 지역에 갤러리, 카페, 서점,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을 들여놓으면서 '환골탈태'시키고 역사성을 지닌 옛 건물이나 낡은 항만 시설을 문화적 거점으로 활용하며 창조적 영감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풍성하게 펼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자못 성공적이었다. 물론 도심에 치우친 정책이었다는 점, 문화 예술을 도구로 이용하다 보니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는 역효과가 생겼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요코하마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작으로 여겨지는 도심은 유유자적 거닐면서 문화적 탐험을 하기에 흥미로운 곳임은 틀림없다. 아카자키만 레스토랑과 상점, 갤러리, 미술관 등이 넘쳐나는 데다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 넓고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역시 활기 넘치는 미나토미라이 역 근처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 행사의 타이틀은 '섬과 별자리와 갈라파고스(Islands, Constellations & Galapagos)'. 연결성(connectivity)과 고립(isolation),

공존(co-existence), 다양성(diversity)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상반되는 가치관이 복잡다단하게 얽힌 작금의 세계를 고민해본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언뜻 좀 뻘뻘하게 느껴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연결돼 있으면서도 정작 깨진 파편처럼 따로 노는 현대의 모습을 곱씹어볼 수 있게 하는 주제다. 크게 요코하마 미술관(Yokohama Museum of Art), 요코하마 아카레나가 창고 1호관(Yokohama Red Brick Warehouse No.1) 두 군데가 주 전시장이고, 요코하마 개항기념회관(Yokohama Port Opening Memorial Hall)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에서 소규모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들어선 붉은 벽돌 소재의 창고 전시장

바닷가를 옆에 긴 아카레나가 창고는 요코하마 최고 명물 중 하나다. 바사미치 역에 내려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잔디밭을 걷다 보면 인상적인 붉은 벽돌 건물이 한 채 나오고, 그 뒤에 똑 닮은 건물 한 채가 더 있는데, 이곳 2, 3층을 트리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한다. 원래 1913년에 지은 창고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만큼 다소 거칠고 어두침침한 공간에 현대미술이 뻘뻘하지 않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 매력적이다. 특히 관객이 작품 의도를 직접 체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미디어, 설치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일례로, 아카레나가 창고 3층에서는 버려진 합판 등 재활용품과 전자 기타, 비디오 등이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범상치 않은 음악과 영상을 빚어내는 광경을 맛드려리게 되는데, 뭔가 우울하고 기계적인 감성을 자아내는데도 정작 지켜보는 어린이들이 모여들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게 만드는 반전의 힘이 있다. 개인이 어떻게 소비사회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는 도쿄 출신의 작가 우지노(UJINO)의 '플라이우드 신치(Plywood Shinchi)'란 작품. 베를린을 무대로 활동하며 인간의 몸과 공공 조각의 관계를 파고드는 독특한 작업을 하는 작가 크리스찬 안코프스키(Christian Jankowski)의 작품 시리즈를 감상할 때는 실제로 마치지 침대에 누워서 바다에 설치된 영상을 보면서 '기(氣)'를 느껴볼 수도 있다.

2층 전시장은 더 흥미롭다. 작품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취향이라지만, 많은 이들이 꼽은 백미는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몇 겹의 커튼을 젖혀야 볼 수 있는 멀티 스크린 영상 작품 'The Visitors'. 아코디언을 켜면서 노래하는 젊은 여인, 육조 속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남성, 커다란 피아노를 연주하는 두 남성... 저마다 다른 공간과 연주자를 담은 9개 스크린에서 나오는 음악과 영상이 처음에는 각기 따로 노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한몸인 듯 폭발적인 연결성을 뿜어내는 데, 마치 라이브 공연장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 라그나르 카르탄손(Ragnar Kjartansson)의 작품이다.

힘찬 붓질과 강렬한 색감으로 인간관계를 표현한 도시유키 코니시(Konishi Toshiyuki)의 회화 작품은 어릴 적 가족과 친구 사진을 바탕으로 했는데,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과 대비를 이루면서 외려 더 고독하고 슬퍼 보인다. 'A Group of Solitude'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작품. 관객이 종이로 된 강풍 헬멧을 쓰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현장의 최근 모습을 가상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이곳 아카레나가 창고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15년 12명의 다국적 아티스트와 큐레이터가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면서 시작된 'Don't Follow the Wind'라는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만나는 셈이다. 현상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요코하마 미술관을 누비는 다채로운 무게

트리엔날레 기간에 미나토미라이 역의 커다란 쇼핑몰 건너

편에 자리한 요코하마 미술관은 단번에 눈에 띄 수밖에 없다. 건물 외벽에 구멍모티브와 구멍조각을 설치함으로써 미술관 자체가 작품으로 변신하는 바람에 멀리서도 시선을 절로 사로잡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SNS상에서 화제를 몰고 왔던 중국 출신의 스타 작가 아이웨이웨이(Ai Wei Wei)의 작품 'Safe Passage'(2016)와 'Reframe'(2016).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를 담았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설치 작품이다. 반체제 예술가로도 유명한 아이웨이웨이는 지난 2015년 베를린으로 주거지를 옮긴 뒤 난민 사태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장(미술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공간 구성구석까지 현대미술 작품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알찬 풍경이 압도한다. 먼저 1층 로비에는 1천6백 개 대나무를 독자적인 기법으로 짠 존재감 넘치는 설치 작품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작가 조코 아비안토(Joko Avianto)의 'The Border Between Good and Evil is Terribly Frizzy'(2017)라는 작품. 또 많은 이들의 시선을 따라 벽 위쪽을 올라다보노라면, 한 남성(작가의 도플갱어)이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미술계 블랙 코미디언으로 통하는 이탈리아 아티스트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무제(Untitled)', 죽음과 고독을 다룬 작품인데, 그 밑에서 방긋 방긋 웃으며 사진 찍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위층으로 올라가 전시실을 둘러보노라면 거짓수로는 볼거리가 꽤 많지만 강력한 한 방보다는 아카자키만 구성에 더 신경 쓴 듯 보인다. 무엇보다 공간에 좀 더 숨통을 터놓았으면 한결 낯익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느껴진다. 그래도 흥미로운 작가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유명 작가의 작품을 또 다른 공간에서 마주하는 재미는 있다.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먼 미래에 일본의 시바견이 폐허가 된 도시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시뮬레이션 작품 'Emissary Forks at Perfection'(2015~16)을 내놓은, 뉴욕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작가 이언 쉑(Ian Cheng), 시공간을 초월한 다른 공간을 상상하게끔 하는 작품 '터널(Tunnel)'(2016)의 필리핀 작가 마크 후스티니아니(Mark Justiniani), 고독한 인간의 영혼을 강렬하게 포착한 듯한 그림들이 인상적인 일본 작가 스스무 기노시타(Kinoshita Susumu) 등의 이름이 기억에 남을 듯했다. 또 아랍 세계의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을 유럽 전통 인형극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이집트 작가 와엘 샤키(Wael Shawky)의 영상 작품('Cabaret'), 난민 문제를 다룬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의 작품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굵직한 행사에서 선보인 'Green Light'(2016) 등 다채로운 작가들의 최근 화제작을 멀리 극동 아시아에서 다시금 마주하는 반가움, 이런 게 바로 국제 미술전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IS** 에디터 고정연



1 아이웨이웨이(Ai Weiwei), 'Safe Passage'(2016), 'Reframe'(2016). Photo by KATO Ken ©Ai Weiwei Studio 2 요코하마 시내, 3 올라푸르 엘리아손(Olafur Eliasson), 'Green Light-An Artistic Workshop'(2016). Co-produced by Thyssen-Bornemisza Art Contemporary. Photo by Sandro E.E. Zanzinger / TBA21, 2016 ©Olafur Eliasson 4 우지노(UJINO), 'Plywood Shinchi'(2017) Photo by SY KO 5 라그나르 카르탄손(Ragnar Kjartansson), 'The Visitors'(2012). ©Courtesy of the Artist, Lühring Augustine, New York and i8 Gallery, Reykjavik, Photo by Tanaka Yuichiro 6 아카레나가 창고 전시장에서 'Don't Follow the Wind' 프로젝트를 감상하는 관객의 모습. Photo by SY KO 7 Zhao Zhao, Project Taklamakan(2016 이미지), 8 파올라 파비(Paola Pavi), 1 and I Must Stand for the Arts and Others '살지 전쟁'(2017). Photo by Tanaka Yuichiro,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lli #1, 3, 5, 7, 8 사진 합친 Organizing Committee for Yokohama Triennale



(중앙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옥토 로마 불가리 워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옥토 컬렉션의 매력을 보다 함의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 스틸 소재 워치, 7차원적인 팔각형에 토대를 둔 강렬한 디자인으로, 41mm 케이스 사이즈가 남성미를 더욱 확실히 부각한다. 58개의 단면을 갖춘 케이스의 완성도는 불가리의 매력이다. 기계식 앙블랑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BVL 191 솔로템포를 장착했다. 7백만 원대. 문의 02-2056-0171

오메가 피게 로열 오크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고급 시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 역시 오메가 피게 로열 오크의 독보적인 부분이다. 마치 주얼리처럼 매력적인 파스상은 스위스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해 실용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한다. 2천만 원대. 문의 02-3479-1809

에거 르클트르 지오피직 유니버설 타임 환상적인 유니버설 타임 다이얼이 돋보이는 스틸 소재 워치. 시와 분을 표기하는 것은 물론 트루 세컨드, 서머타임 인디케이터, 24개 도시를 나타내는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타임 존의 시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에 기계식 시계의 가치와 매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소장 가치 높은 제품이다. 2천만 원대. 문의 02-3449-5912

피아제 폴로 S 워치 피아제의 상징적 컬렉션인 폴로 워치의 스틸 버전. 심플하고 남성적인 디자인, 상징적인 피아제의 케이스, 선호도 높은 크로노그래프 다이얼 디자인까지 품위와 실용성, 기계적인 매력을 모두 갖춘 모델이다.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데이터 표시까지 데일리 워치로 매력적인 모델이다. 1천8백만 원대. 문의 02-540-8897

오메가 드 빌 프레스타지 코-엑시얼 우아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시그니처 컬렉션의 스틸 버전. 햇빛이 반사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산웨이 블루 다이얼과 로마숫자 인덱스가 클래식한 느낌이다.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2500을 장착해 오래도록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4백만 원대. 문의 02-511-5797

카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워치 카르띠에의 상징적인 워치인 탱크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올해 가을 새롭게 론칭한 탱크 아메리칸 스틸 디자인. 1989년 출시되어 국산과 직선의 미학을 선보인 이 디자인은 여윌고 독창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오리지널 탱크의 매력과 모던한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6백90만 원대. 문의 1566-7277

브래게 마린 컬렉션 5817ST 스틸 케이스로 완성한 마린 컬렉션 5817ST는 517GG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은 물론 6시 방향의 빅 데이터까지 브래게만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70세 패턴의 실버 골드 다이얼과 담 블루 컬러의 브래게 핸즈까지 심플한 디자인에 가치 있는 디테일을 담았다. 잠금장치를 닫힌 크라운 덕분에 스포츠 워치의 기능까지 온전히 갖추고 있다. 2천94만 원대. 문의 02-6905-3571 에디터 배미진



utterly Firm

데일리 워치로 매일 사용해도 지치지 않는 스틸 워치의 견고한 매력.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컬렉션의 스틸 버전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강남구 압구정로 458 - SEOUL
02. 514. 0900



moncler.com



LIU BOLIN PERFORMING FOR MONCLER



Loro Piana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저지 소재의 스웨터 재킷. 로로피아나의 명성을 엿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핏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깔끔한 슬랙스에도, 캐주얼한 데님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으며, 밝은 톤의 베이지 컬러로 세련된 인상을 더해준다. 4백10만원대, 이너로 매치한 더블 캐시미어 저지 소재의 플레인 니트 2백30만원대, 모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04



Ermenegildo Zegna

클래식 아우터의 정석을 보여주는 비류나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포인트인 그레이 울 재킷. 고급스러운 컬러 조합과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셔츠는 물론 터틀넥 니트와의 매칭도 단연 멋스럽다. 3백80만원대, 브라운 컬러의 울 터틀넥 1백10만원대, 스카프처럼 함께 매치한 니트 타이 26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길도 제냐**, 문의 02-3453-2287

New essentials

수년 후 꺼내 입어도 우아하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잃지 않을, 당신이 투자해야 할 웰메이드 남성 아우터 4.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Hermès

평범한 록에 우아하고 스타일민시한 포인트가 되어줄 글렌 체크 캐시미어 코트. 허리를 여는 트렌치코트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 과하지 않으면서 우아한 체크 패턴, 윤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소재와 고급스러운 실루엣까지, 역시 에르메스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직접 입어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6백만원대, 아이보리 캐시미어 터틀넥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Prada

프라다 특유의 미니멀하면서도 단정함 디자인에 레트로 무드를 가미한 체크 울 코트. 군더더기 없는 기본 코트이기 에 포명한 록에도 잘 어울리지만 차는 팬츠나 데님과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면 보다 영하고 유틸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4백70만원, 울 소재의 컬러 블록 반소매 니트 1백70만원, 모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리스트 유원영, 이나리트 이세영, 김은서, 세터 스타일리스트 박수영



Brooks Brother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롯데 본점 5F | 02.772.3456 롯데 잠실점 5F | 02.2143.7682 롯데 강남점 5F | 02.564.1886 현대 본점 4F | 02.3438.6231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현대 대구점 2F | 053.245.2270 신세계 센텀점 5F | 051.745.2855 스타필드 하남 2F | 031.8072.8340

BROOKSBROTHERS.CO.KR



Passion of the art

롤렉스는 '롤렉스다. 그 이름만으로도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존재, 과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롤렉스의 열정은 시계 제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도 여실히 녹아들었다. 바로 40여 년간 협력으로 맺은 롤렉스와 예술계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 권위 있는 예술 기관과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것. 세계 문화 예술의 품격을 높인 롤렉스의 열정과 행보를 소개한다.

탁월함을 향한 롤렉스의 열정, 세계 문화 예술의 품격을 높인다

기술로만 승부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브랜드의 모토로 삼아 1백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시계 산업을 이끌어 온 롤렉스. 늘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탁월함을 향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전진하는 롤렉스의 열정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롤렉스와 예술계의 인연은 뉴질랜드 출신의 소프라노 키리 테 카나와(Kiri Te Kanawa)를 롤렉스 최초의 문화 홍보대사로 선정한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플라시도 도밍고(Placido Domingo), 체칠리아 바르톨리(Cecilia Bartoli), 브린 터펠(Bryn Terfel), 요나스 카우프만(Jonas Kaufmann), 소냐 욘체바(Sonya Yoncheva),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Juan Diego Flórez) 등 세계적인 성악가를 비롯해, 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 피아니스트 유자 왕(Yuja Wang), 재즈 가수 마이클 부블레(Michael Bublé), 시타르 연주자 아누슈카 샹카(Anoushka Shankar) 등 오페라부터 클래식, 현대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를 폭넓게 후원하면서 유대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롤렉스는 이런 예술가들이 탁월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최고의 무대를 후원하면서 세계 문화 예술의 역사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18세기 후반부터 클래식 음악의 번성을 이끌어난 전설적인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수 세기에 걸쳐 세계 최고의 무대로 인정받고 있는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저명한 오페라 가수를 배출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이 무대들의 공식 위치 파트너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오페라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은 클래식 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져, 명성 높은 클래식 이벤트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오랜 세월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지켜온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투자와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인류 문화 예술의 발전을 이끌 신예 예술가를 적극 후원하다

이제 롤렉스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누구에게나 워너비가 되는 시계라는 점과 함께 문화 후원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도 동시에 떠올려야 할 것이다. 그만큼 롤렉스는 그간 이들의 명성과 문화 후원에 대한 열정을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저명한 아티스트나 재단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도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표적으로 롤렉스의 홍보대사 플라시도 도밍고가 창립한 국제 성악 콩쿠르 오페랄리아와 젊은 예술가들이 같은 분야의 거장과 1:1 멘토링 관계를 형성해 1년간 창조적인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Rolex Mentor and Protégé Arts Initiative)'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롤렉스 멘토 & 프로테제 아트 이니셔티브는 2002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무용, 영화, 문화,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한 신예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이 특징. 2016년에 선정된 제8기 프로그램 신예 예술가들은 올해까지 멘토의 지도와 조언을 통해 주목받는 예술가로 성장 중이다. 이렇듯 독보적인 문화 예술 후원사로서 롤렉스의 뜻깊은 후원 행보는 전 세계 문화 예술 발전에 일조해 예술계 전반에 걸쳐 탁월한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문의 02-2112-1251 [에디터 권유진](#)



1 오페라의 제왕이라 불리는 스페인 출신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2 떠오르는 젊은 아티스트인 시타르 연주자, 아누슈카 샹카. 3 최고의 재즈 밎 보컬리스트, 마이클 부블레. 4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수놓은 롤렉스 오페라 하우스 39. 5, 6 롤렉스가 공식 후원하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7 뛰어난 초콜릿 달러다 아말이 톨보이는 롤렉스 레이디-데이 트레이서스 28.



Amalia, Diadora and Cybillina Bag

Lotte Main Avenue | Gangnam | Jamsil | Suwon | Ulsan | Hyundai Mia | Cheonho Kintex | Busan | Shinsegae Daegu | Galleria Time World | Debec Plaza. Information 02.759.0662

sponsored by ROLEX



레드 드레스 4백50만원
자갈바티스타 발리, 태슬 장식
미니백 가격 미정
하우스 로고 패턴 토트백 가격 미정
다음, 크리스탈 이어링 가격 미정
타니 by 미네타니.

니트 터틀넥, 벨벳 더블 재킷,
벨벳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막스아라**.
레오파드 퍼코트 6백30만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스웨이드
빅 토트백 2백20만원 **토즈**.

Bag Crush

가장 매력적인 도발. 2017 F/W 시즌 빅 브랜드
잇백(it bag)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핑크 시퀀 장식 미니드레스,
크리스탈 주얼 장식 이어링,
실버 스트랩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미유미유**, 화이트 토트백
1천만원대, 클라우드 패턴 미니 백
참 가격 미정 **델보**.



스타드 주얼 디테일의 코트 가격 미정,
블랙 니트 톱 1백30만원대,
페더 디테일의 체크 스카르트 가격 미정,
핑크 퍼슬다백 2백30만원대 모두 **프리다**.



옐로 토트백 2백40만원,
화이트 PVC 셔츠 2백50만원,
블랙 니트 베스트 가격 미정
모두 **바버리**, 골드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타니 by 미네타니**.



패턴 롱 드레스, 그린 토트
숄더백, 레이스업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플라워 패턴 셔츠 2백2만원,
 플라츠스카트 가격 미정, 체크 패턴
 재킷 가격 미정, 레더 벨트 가격 미정,
 벨트에 레이어드한 파우치백 가격 미정,
 블랙 토트백 가격 미정 모두 **펜디**,
 그레이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막스마라**.



볼드한 그린 패턴 아이웨어,
 비즈 장식 칼라 테일러드 재킷,
 그린 실크 팬츠, 러프한 블랙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로커다일 토트백
 2천7백만원 **보태가 베네타**.



헤어 박선호
 메이크업 김지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미우미우 02-3479-6182
 델보 02-3449-5316
 에르메스 02-542-6622
 조르지오 아르마니 080-022-3332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펜디 02-2056-9022
 막스마라 02-3467-8326
 프리다 02-3218-5331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토즈 02-3438-6008
 바버리 080-700-8800
 디올 02-3480-0104
 타니 by 마네키니 02-6905-3583
 지엠비스타 빌리 02-6905-3357



Her Time in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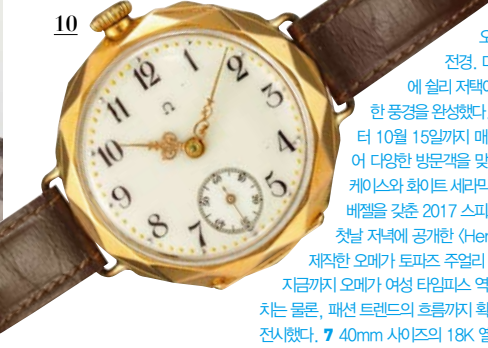
대를 물리는 아름다운 시간의 유산, 오메가의 오랜 앰배서더인 톱 모델 신디 크로퍼드와 현재 세계적인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자녀들(카이가 거버, 프레슬리 거버)이 이 브랜드의 현신을 아름답게 상징한다. <스타일 조선티보>가 패션쇼가 한창인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펼쳐진 오메가 <Her Time>전에 참석해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직접 확인했다.

2 오직 여성을 위한, 오메가의 특별한 유산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만큼이나 활동적이고 스포티하고 바쁜 시간을 보낸다.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정확한 시계가 필요하다(In all facets of life, a woman is just as active, sporty, and as busy as a man. Like him, she demands a watch of precision)." 이 인상적인 문구는 지난 1951년 오메가가 여성 위치를 위한 광고 캠페인에서 사용한 슬로건이다. 70여 년 전,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에서 현재에도 통용될 만한 진취적인 스토리텔링을 펼쳤다는 것은 여성 위치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브랜드의 유산을 이어받은 지난 9월 29일 파리의 유서 깊은 공간인 샬리 저택(Hôtel de Sully)에서 오메가는 여성 시계 캠페인을 재편하는 전시를 개최했고, 다시금 브랜드의 가치 있는 스토리를 알렸다. 패션의 성지인 파리에서 여성 패션 위크 기간 동안 <Her Time> 전시를 개최해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역사에서 여성 위치가 갖는 위상을 재조명한 것이다. 이 캠페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과 가족이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전설적인 톱 모델 신디 크로퍼드(Cindy Crawford)와 그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스토리를 이어받은 두 자녀가 그 주인공이다. 1백 년이 넘는 여성 위치 메이킹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 이 가치를 상징하는 가족이자, 오메가의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인물로 선택된 것.

1995년부터 오메가와 함께한 신디 크로퍼드는 오메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얼굴이자, 하이 패션의 역사를 대변하는 아이콘이기도 하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 캠페인과 이벤트에 오래도록 얼굴을 비추었다. 이날 전시 오픈 전에 전 세계 프레스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본 행사장에서도 오메가 대표이자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 그리고 남편인 랜디 거버(Rande Gerber), 두 자녀인 카이아와 프레슬리 거버(Kaia and Presley Gerber)가 함께 무대에 올라 오메가의 스토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녀들이 오메가의 새로운 앰배서더로 선정된 것에 대해 신디 크로퍼드는 "오메가와 함께한 여성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카이아와 프레슬리도 제가 그랬던 것



1, 5 샬리 저택에 위치한 오메가 (Her Time) 전시장 전경. 미래로 이루어진 전시장 외관에 샬리 저택이 비쳐 모던면서도 클래식한 풍경을 완성했다. 전시장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일 9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어 다양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2**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화이트 세라믹 링 타카터 눈금을 적용한 베젤을 갖춘 2017 스피드마스터 38mm. **3** 오프닝 첫날 자리에 공개한 <Her Time> 전시장. **4** 1956년 제작한 오메가 톱퍼 주얼리 시드링 워치. **5** 전시장에는 지금까지 오메가 여성 타임피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워치는 물론, 패션 트렌드의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소품까지 함께 전시했다. **7** 40mm 사이즈의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아름다운 2017 드림 컬렉션. **8** 파리에서 열린 오메가 (Her Time) 전시 오프닝 이벤트 레드 카펫 행사에서 오메가 CEO 애슐리만과 함께한 카이아와 프레슬리 거버. 카이아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프레슬리는 스피드마스터 문양자를 착용하고 있다. **9** 패션 사신의 가정으로 잘 알려진 피터 린드버그(Peter Lindbergh)가 말리부 비치에서 찍은 신디 크로퍼드 가족사진. **10** 1906년 출시한 오메가의 여성용 손목시계 레인 펜던트(Lépine Pendants) 워치. **11**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메가 앰배서더로 활약한 신디 크로퍼드. 1997년 촬영한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광고이다. 이번 파리 행사에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mm를 착용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indy Crawford's choice

Omega - my choice Cindy Crawford

11



처럼 오메가와 함께하는 것을 매우 기쁘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재능을 펼치고 있으며, 브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오메가의 새로운 앰배서더가 되어 매우 자랑스러워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화답해 CEO 애슐리만은 "오메가에는 다양하고 예술적인 제품이 많습니다. 이번 <Her Time> 전시에서는 여성 시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중 일부를 전시합니다. 전 세계 패션의 중심인 파리에서 전시를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신디의 가족과 함께해 전시를 구성한 것도 특별하지요. 카이아와 프레슬리는 차세대 시계 팬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풍부한 에너지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메가가 세대를 이어 열정적인 패밀리와 함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젊은 친구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대됩니다"라고 전시에 대한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 신디 크로퍼드 패밀리의 또 다른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바로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피터 린드버그가 말리부 비치에서 촬영한 가족사진이다. 이 사진은 신디 크로퍼드와 남편 랜디 거버, 카이아와 프레슬리 거버가 함께한 최초의 공식 사진으로, 신비로운 분위기와 오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세대를 잇는 기교로서 시계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했다.

오메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담은 <Her Time> 전시

샬리 저택 중앙 메인 부스에서 개최된 <Her Time>은 스위스 오메가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던 오메가의 전설적인 여성 위치를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 앞서 말리노, 모스크바, 상하이, 시드니에서 개최한 전시를 파리에서 다시 한번 총망라했다. 오메가 타임피스의 초기 레핀 펜던트와 아이코닉한 레이디매터, 고전적인 시크릿 주얼리 위치와 올해 새롭게 출시한 뉴 컬렉션까지 오메가 여성 타임피스의 진화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시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수년에 걸친 여성의 수많은 빈티지 미술품, 오메가의 기념비적인 광고 캠페인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사실 오메가는 이미 1902년 독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시계를 선보인 바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여성 시계를 출시한 적은 있지만, 오직 여성을 위한 실용도가 뛰어난, 마치 주얼리처럼 보이는 시크릿 주얼리 위치를 제작한 것은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 20세기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권이 정립되며 오메가의 여성 시계 역사도 함께 발전했는데, 1894년부터 1935년까지 오메가의 고급 무브먼트 제품 중 35% 이상이 여성 시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다. 이미 시절부터 오메가는 여성 위치의 중요성과 가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역사가 지금의 레이디매터, 컨스텔레이션을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여성 위치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스위스 메이드 시계에 여성의 품위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담아 새로운 세대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오메가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정(피터 린디 허제)**

Intervew with Cindy Crawford

오메가와 함께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너무나 많아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탄 적도 있었죠. 오메가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을 수 차례 찾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3년 전 말리부 오르비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페루에 갔던 일이에요. 거기서 오메가가 후원하는 오르비스 인터내셔널의 플라잉 아이 호스피탈(Flying Eye Hospital)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찍었어요. 그곳에서 제 딸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거든요.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함께 나눈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요.

오메가와 함께한 이후, 오메가 시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오메가와 처음 한 작업은 광고 캠페인 촬영이었어요. 당시 오메가는 저를 패션모델로 봤죠. 전 오메가를 하나의 직업(업)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촬영을 하면서 친해졌고, 오메가가 말리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저를 초대했어요. 미치 데토도 갔었고, 그때부터 서로 유대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이벤트에서 오메가의 중심에는 오랜 역사와 품질, 유산, 그리고 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에 얽힌 풍부한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남편과의 결혼 생활보다도 오메가와 함께한 시간이 더 길다고 농담을 하곤 해요. 오메가는 제 아이보다 25세의 모델이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좋아요. 이전엔 말리부에서 아이하고 사진 찍는 사실을 인정해주죠. 전 25세가 아니라 51세예요. 오메가는 저를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아요. 제가 성장하도록 해주었고, 우리가 함께한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제 제 아이들도 오메가의 일원이 되어 너무나 기뻐요. 오메가의 중심엔 유산이 있고, 제 아이들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오메가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 올림픽에 함께 갔죠. 아이들은 오메가 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메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오메가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멋진 오메가를 유지하는 비결은 들려주실래요?** 51세란 나이는 모델로서는 기혹한 나이죠. 50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외모는 20세 때와 같지 않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불기행하고, 그래서 안 되고요. 거의 20세가 된 자태가 있어요. 제게 나이가 먹다는 건 자신을 돌보고, 삶의 다른 부분을 발전시키는 일이에요. 저 나날이 멋지고 재미있었지만, 현재도 멋지고 미래도 멋지길 원해요. **오메가 컬렉션 중 가장 좋아하는 시계는 무엇이었나요?** 컨스텔레이션에 감동적으로 가장 많이 끌려요. 오메가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스위스에 가서 워치 메이킹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시 컨스텔레이션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의 의견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앞으로 항상 컨스텔레이션에 유대감을 느낄 거예요. 비에는 레이디매터를 자주 착용해요. 멋진 시계가 너무나 많아요. 스타일을 연출할 때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요.

Trendy point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하고 단정한 디자인의 블랙& 화이트 페니 로퍼 7만 원, 메탈 버클 장식과 발등을 덮는 슬림한 라인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로퍼 1만 원, 에르메스, 깃부분을 잡아 슬라이딩 슈즈로도 활용할 수 있는 크로커 패턴의 스카족 슬림 로퍼 99만 원, 로에베, 스트랩 힐 1만 원, 바버리.



it boot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들레 양말을 신은 듯한 디자인이 유니크한 리코코 슈즈 1만 원, 맨디, 상징적인 블랙 알코로 포인트를 준 강렬한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하이 부츠 1만 원, 사벨, 외압당한 워커 부츠 스타일의 모노그램 캔버스 보이시 앵글부츠 1만 원, 루이 비통.



fabulous Appeal

한눈에 봐도 브랜드를 캐치할 수 있을 만큼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DNA와 개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번 시즌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2017 F/W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odern flat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하고 단정한 디자인의 블랙& 화이트 페니 로퍼 7만 원, 메탈 버클 장식과 발등을 덮는 슬림한 라인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의 스웨이드 로퍼 1만 원, 에르메스, 깃부분을 잡아 슬라이딩 슈즈로도 활용할 수 있는 크로커 패턴의 스카족 슬림 로퍼 99만 원, 로에베.



ladylike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간혹미가 돋보이는 골드 컬러의 청키 힐과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인 스웨이드 펌프스 79만 원, 산비둘기 패턴이 모던하고 리본 장식과 진주 스트랩, 핑크 컬러의 아웃솔과 플러워 패턴까지, 여성스러운 무드를 한껏 담은 페이퍼트 힐 1만 원, 핑치 메탈 디테일과 레트로풍 세이프가 인상적인 블랙 힐 1만 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에디터 권유진

- 구찌 1577-1921
- 산비둘기 패턴 펌프스 02-3430-7854
-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3479-1852
- 맨디 02-2056-9023
- 사벨 02-543-8700
- 루이 비통 02-3432-1854
- 토즈 02-3438-6008
- 에르메스 02-542-6622
- 로에베 02-6905-3470
- 프라다 02-3218-5331
- 바버리 060-700-8800



1



the memorable Moments

80시간 동안 지속되는 뛰어난 무브먼트를 장착한 티쏘의 컬렉션. 그 지치지 않는 힘을 파워메릭 80이라는 캠페인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80시간 동안의 영화 상영, 에너제틱한 일상을 영위하는 아티스트들의 삶까지 담았다. 티쏘가 정의하는 새로운 80시간의 의미.

티쏘 파워메릭 80 무브먼트, 그 열정적인 탄생을 위한 캠페인
멈추지 않는 80시간의 열정을 위해 티쏘가 파워메릭 80 캠페인을 펼친다. 80이라는 숫자는 지금 티쏘에 너무나 중요한 명제다. 스위스 최대의 무브먼트 제조사인 ETA사와 손잡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오토메릭 무브먼트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시계가 갖추고 있는 36시간의 지속성을 넘어 전차장지 없이 더 오랫동안 구동하는, 무려 80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시간을 표시하는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새로운 무브먼트 파워메릭 80을 티쏘의 대표 컬렉션인 발라드, 트레이션, 오픈하트, 슈방 데 무엘, 르로콜에 도입하게 된 것.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기념하기 위해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티쏘의 파워메릭 80 무브먼트를 탑재한 컬렉션을 위한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파워메릭 80, 80시간의 멈추지 않는 열정(The Memorable Moments of 80 Hours)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티쏘는 CGV와 함께 80시간 동안 릴레이 형식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담 CGV 씨네씨티에서 개최된 티쏘 파워메릭 80 영화제에서는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탈한 선사인> 등 시간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다채로운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제 참가비는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윤두준, 배우 이기우, 이천희, 엄현경 등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 1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무용가 최수진이 티쏘의 파워메릭 80 캠페인에 참여해 아름다운 영상을 완성했다.
- 2 세심하게 스케줄을 조정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최수진에게 티쏘의 발라드 컬렉션은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다.
- 3 티쏘 파워메릭 80 영화제가 열린 청담 CGV.
- 4 무용가 최수진이 영상에서 착용한 티쏘 발라드 컬렉션, 역시 COSC 공식 인증을 받은 파워메릭 80 오토메릭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 5 7상영관 입구에 다양한 티쏘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 6 행사장을 찾은 현대무용가 최수진.
- 8 파워메릭 80 무브먼트를 탑재한 티쏘 슈방 데 무엘 레이다.

● sponsored by TISSOT



모던 댄서 최수진의 의미심장한 80시간
파워메릭 80 캠페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바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3인의 아티스트가 자신들의 80시간을 영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주자는 <댄싱 9>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명성을 얻은 현대무용가 최수진의 스토리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자 뉴욕 시터레이크무용단 단원을 거쳐 현재 국립현대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최근 비보이 하위동과 결혼을 발표하며 행복한 스토리를 전하기도 했다. 영상은 티쏘 파워메릭 80 캠페인 이벤트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 80시간의 기록을 남긴 것인데, 국립현대무용단 연습으로 시작한 영상은 현대무용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무용 콩쿠르 심사, 화보 촬영으로 이어져 마지막은 다시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이 열리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짧고도 긴 현대무용가의 80시간, 그리고 이를 쉬지 않고 기록하는 티쏘의 무브먼트에 대한 열정까지 더해진 멋진 스토리는 티쏘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Tissot.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49-8237 에디터 배미진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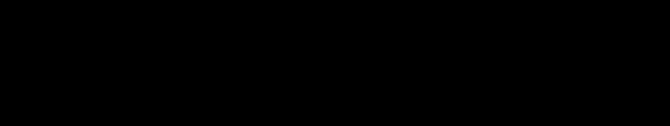
5



6



7



the evolution of Classic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모델들이 기존 클래식의 엄격함을 벗어던지고 한층 자유분방한 모습을 선보인다. 빛의 노출에 따라 렌즈 색상이 변하는, 고도의 렌즈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모델부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아이웨어까지, '클래식의 진화'를 콘셉트로 한 레이벤(Rayban)의 2017 F/W 키 컬렉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부터 차례대로) 많은 셀러브리티의 사랑을 받아오며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아이웨어로 떠오른, 특유의 육각형 헤시고날 모델에 더블 브리지 프레임이 접목한 마살 RB3648. 빛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분포하는 미래 렌즈를 장착했다. 23만7천원. 레이벤을 상징하는 클래식 아이콘, 클래식스타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바로 투명 아세테이트 소재 프레임으로 유휴자음을 표현한 것. 미래 지향적인 투명 소재를 장착해 멋스러운 아이웨어로도 즐길 수 있는 RB5154 모델 19만1천원.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점점 진해져서 혁신적인 워시드 렌즈를 장착한 이블루 컬렉션의 라운드 메탈 선글라스. 옐로 베이스의 9066/4A 컬러 렌즈에 블랙 프레임이 매치한 RB3447. 블루 베이스의 9066/5 컬러 렌즈와 실버 프레임이 장착한 RB3447 각 23만8천원. 모두 **레이벤**. 문의 02-501-4436 에디터 **이지연**

● sponsored by Luxottica



Active wear
최고급 향기티 구스를 사용해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하며 스포티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의 월딩 다운 베스트. 탈착할 수 있는 후드 패널이 있어 후드형 베스트로 연출하거나, 후드를 떼어내고 심플한 베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62만원. 후드 인쪽의 월딩 디테일과 니트 밴딩의 컬러 포인트 등 랭방스포츠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울 후드 롱 29만원. 엘보 처리한 이블루아 최고급 가죽에 다이아몬드 패턴을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자아내는 엘보 레더 백백. 모든 장식에 유니크한 러버 코팅 도금을 사용했다. 59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Luxury sportism
최고급 향기티 구스 스펀을 90%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 조경량 메시 다운 패딩. 복원력이 우수한 소재와 충진재를 사용해 돌돌 말아 가방에 넣었다 꺼내도 패딩의 볼륨이 살아난다. 72만원. 맨투맨 끝에 컬러 포인트를 더한, 겨울철에 활용도가 높은 배색 맨투맨 25만원. 부드럽고 탄력 있는 저지 소재가 발을 감싸는 디자인으로, 양말을 신은 듯 편안한 착용감이 큰 장점인 블랙 스펀은 35만원. 매트한 텍스처의 고무 코팅 기술로 더한 이블루아산 가죽과 저지 소재를 믹스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무드를 발산하는 미니 메쉬저 28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Sportive dress-up

미운틴 클라이밍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액티브한 무드로 선보이는 랭방스포츠의 뉴 컬렉션. 암벽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컬러를 럭셔리하게 풀어내 남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asy chic
정파의 편안함과 코트의 멋스러운 스타일 및 보온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롱 잠퍼 코트. 기능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간결하지만 남다른 유니크함을 갖춘 하이브리드 아우터는 랭방스포츠만의 DNA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아이웨어이다. 아너에 탈착할 수 있는 레이아웃 라이더가 있어 날씨에 따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 85만원. 저지와 니트 소재를 유니크하게 믹스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그레이 롱 32만원. 다양한 컬러의 가죽과 메시, 저지 소재 등을 믹스해 세련된 포인트를 더하는 컬러 믹스 레더. 비브람 스펀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45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Modern casual
스매 쿨의 밴딩 디테일, 월딩 포켓 등 랭방스포츠만의 스포티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잠퍼 패딩 62만원. 스porti한 느낌을 주는 배색 니트 29만원. 손잡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배색 클러치. L자형 저퍼로 유연하게 디자인했다. 28만원. 내구성 높은 저지 소재에 봉제선 대신 핫멜트 디테일을 더해 깔끔하면서도 스포티한 무드를 선보이는 저지 핫멜트 레더. 비브람 스펀을 적용해 가볍고 착용감이 편안하다. 38만원. 모두 **랑방스포츠**. 문의 02-3438-6252(한남대역) 백화점 입구정 본점, 02-6905-3743(강남역) 백화점 WEST점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 sponsored by LANVIN SPORT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셴 셸터 멀티 프로텍션 SPF 50+/ PA++++** 이보다 더 촉촉할 수는 없다. 에멀션에 가까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제형. 가볍게 발리고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지만 미지 수분 크림을 바른 것처럼 수분감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덕분에 이후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과 지속력이 더욱 높아진다. 순한 사용감으로 건조한 피부나 화장기에 예민해진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외선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도시형 자외선 차단제. 60g 5만 2천원. 문의 080-568-3111

디올 디올스노우 UV 섀드 SPF 50+/ PA++++ 베이스 메이크업 효과까지 겸비한 자외선 차단제다. 비록 피부가 시뻘룩하고 환해 보인다. 미지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피부감과 톤이 깨끗하게 정돈된다. 또 아주 미세한 펄 입자를 함유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백탁 현상이 없으며 이물질도 비리지 않은 듯 가볍게 마무리된다. 미네랄 UV 필터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에멀베이스 추출물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0ml 7만3천원. 문의 080-342-9500

에스티 로더 코어렉트 화이트 톨사이를 브라이팅 UV 프로텍터 SPF 50/ PA+++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미백 기능을 더한 제품이다. 라이트사이클 QD 콤플렉스가 이미 생긴 색소침착을 완화할 뿐 아니라 피부 표면의 브라이팅닝 작용을 촉진한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진정 작용을 하는 항자극제가 자극을 완화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매우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어떤 피부 타입에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0ml 6만2천원. 문의 02-3440-2772

시세이도 퍼펙트 UV 프로텍터 H SPF 50+/ PA++++ 끈적임이나 번들거림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도막감이 전혀 없다. 워터 베이스의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에 들림도 없고 매끈하게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 사용해도 좋다. 하이드르 프레스 네트워크가 피부에 강한 보호막을 만들어 기법차단 자외선 차단 효과는 탁월하다. 폼과 물에는 잘 지워지지 않지만 일반 클렌저로 쉽게 세정되는 것이 장점이다. 50ml 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클레르데보 보베 크렌드 프로텍팅 UV SPF 50+/ PA++++ 에센스 질로 스즈케어 효과를 더한 자외선 차단제. 이미 넓은 미야츠를 가느라고 있다. 수분 세럼을 함께 바른 듯 보송감이 오래 유지될 뿐 아니라, 마이크로 베일과 모공 케어 파우더가 빛을 확산시키고 피부를 톤 업시키는 등 메이크업 효과까지 겸했다. UVA, UVB 등 다양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광노화를 예방한다. 또 안티폴루션 파우더 입자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50ml 15만원. 문의 02-3438-6032

랑콤 UV 엑스퍼트 유스 섀드™ 아쿠아젤 SPF 50+/ PA++++ 산뜻한 젤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로 촉촉한 보송감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건조한 가을 날씨에 특히 좋은 제품. 백탁 현상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해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준다. 자외선 UVB부터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는 UVA까지 차단해 초기 노화와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또 모낭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로 일상생활 속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30ml 5만7천원. 문의 080-001-9500

샤넬 UV 에센셜 쉐-크림 UV 볼루션 SPF 50 피부는 원래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있지만, 자외선 등 외부 환경적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대응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와 역할을 하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SPRR3 성분을 활성화하도록 한 제품. 피부 외부 보호는 자외선 차단 효과뿐 아니라 피부 내부를 보호해 피부가 근본적으로 탄탄하고 화사하게 유지되도록 만든다. 쉐 타입으로 실크처럼 매끈하게 마무리된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재민**



perfect Protection

가을이어서 자외선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외부 활동이 늘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을 피부는 여름 피부 못지않게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화장대 위에 꼭 쟁쟁두어야 할 가을 자외선 차단제 7.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ditor's Pick

뷰티 신제품으로 가을 찬 풍요로운 가을, <스타일 조션일보> 기자들이 테스트해본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망 키스키스 매트 립스틱** 촉촉하지만 매트한 미루감을 선사하는 텍스처로 풍성한 발색이 돋보이며,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 케이스로 여성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 또한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 3.5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재민*

시세이도 플 래쉬 멀티-디펜션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360도 회전 가능하고 최대 30도까지 구부러지는 브러시로 짧고 밀기 힘든 속눈썹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가벼운 파우더 타입이지만 풍성한 볼륨 효과를 주는 포플러를 적용,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짐이 없는 강력한 지속력을 자랑한다. 8ml 3만9천원. 문의 02-3438-6073. *by 에디터 이재민*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핑크 리본 에디션 유행양 캠페인 달인 10월 한 달만 판매하는 한정판. 상징적인 갈색형 패키지를 유망한 에디션 상징하는 핑크 리본 캠페인에 어울리게 핑크 컬러로 변경하고 핑크 리본 키 체인으로 장식했다. 50ml 15만5천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이재민*

나스 맨이 2017 올리바이 갈색선 블러쉬 인텐슬리 20대 사이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고급 메이크업과일처럼 상큼한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뎀처럼 컬러 블러셔. 향광성이 살짝 강도는 선명하고 밝은 오렌지 컬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피부에 발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촉촉한 맨 얼굴에 테스트해보는 데, 특목 튀는 핑 컬러가 두 행에 과즙처럼 건강하고 상큼한 생기를 불어넣는 신세계를 경험했다. 6g 4만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레 메르베유즈 리퀴드 페이스 컬러 로즈 리퀴드 치크 미니 마카롱으로 잘 알려진 리퀴드 페이스는 코즈메틱 브랜드. 로맨틱한 박스에는 달콤한 마카롱 대신, 정교하게 만든 장미 꽃잎이 담겨 있다. 브러시로 꽃잎을 상상 문질러 두 행에 퍼 바르면 꽃잎이 자연스럽게 물든다. 맨세장에서만 판매하니 출장과 여행을 앞둔 이들은 눈여겨볼 것. 1g 3만원. 문의 02-759-6822. *by 에디터 이재민*

시모르 퍼스트에이드부터 스킨 레스큐 블러시 메이크업 매트 환절기 울긋불긋한 스킨을 잠재울듯 비일 땀기 세안 후 얼굴 전체를 패드로 두어주기만 하면 된다. 꾸준히 3일 정도만 사용해도 여드름과 피각은 아니라 얼굴의 붉은기를 완화해 깨끗하고 균형 잡힌 피부로 거듭난다. 토너 대용으로 사용 후 기존 스킨케어 루틴을 따르면 된다. 60pads 4만1천원. 문의 02-2150-2394. *by 에디터 이재민*

에어린 튜베로즈 로 주르 아름다운 가을 때나 심을 때 뿌리면 좋을,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인도의 꽃, 튜베로즈의 순수한 향을 담은 여성 향수. 한편 맑으면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 이국적인 향으로, 낮 동안 햇살을 가득 머금은 튜베로즈의 따스함과 함께 이와 상반되는 시원하고 상큼한 네롤리, 오렌지 플라워 앵술루트 등을 배합해 와이드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를 한껏 담았다. 50ml 23만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로 무주 크레용 드 글로브 에디터의 인생 립스틱으로 등극한 통통한 크레용 타입 립스틱. 뭉침 없이 촉촉하게 발리면서 과하게 번들거리지,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에쁜 텍스처와 컬러로 표현된다. 또 같은 레드 컬러도 샤넬에서 만든 레드에는 다른 듯 특유의 우아함이 돋보이는 세련된 11가지 컬러 팔레트로 선보인다. 1.2g 4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울트라 풀 스펙트럼 확실한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하는 랑콤의 상징적인 라인인 안티에이징 버진. 잔티 제거와 탄력 개선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워터 제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부 톤을 화사하게 가꿔준다. 화이트닝에 가장 확실한 성분인 비타민 C 유도제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유추출물을 함유했다. 50ml 20만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재민*

데코르테 AQ 크림 크림이라고 많은 양을 도포할 필요 없이, 진주 알갱이의 양으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일인 텍스처가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들면서 탄력을 가득 채워주기 때문. 1년 중 단 몇 주만 추출한 귀한 자작나무 수액, 데코르테만의 감성적인 재생 성분과 풍요로운 향으로 피부뿐 아니라 감각까지 생생하게 어루만져준다. 25g 2만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재민*

조르지오 아르mani 뷰티 마에스트로 아르mani 투고 무션 선행한 레드 컬러 패키지의 강력한 매력 덕분에 출시하자마자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쿠션 팩트. 차광한 쿠션 시팅에서 순식간에 품질을 가꿀 수 있었던 것은 베이스 텍스처에 뛰어난 노하우를 가진 아르mani의 제품력 덕분이다. 또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고집하는 리프트 파운데이션의 놀라운 재형을 쿠션에 고스란히 담았기에 꼭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15g 8만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재민*

산티마리아 노블리 올리오 비노 노베 신비로운 묘약을 연상시키는 엔틱한 보틀에 담긴 이 제품은 오라엔탈 스킨케어 향이 매력적인 베스 오일이다. 목욕 물에 1~2티스푼 넣어 입욕제로 활용하거나 보다 글렌저 대신 사용하면 된다. 오일을 바르고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자연 유분은 남[고 자국이 노예만 안색하게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더욱 안심할 수 있다. 60ml 9만2천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권유진*

피레쉬 슈가 겔 매트 트리트리트 SPF 15 한번 사용하면 모든 반하고 마는 가벼운 발색력이 매력적인 립 케어 제품. 핑크빛 숏시팅에서 영감을 얻어 핑크 컬러, 보습 오일, 향신료 성분까지 여성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았다. 여러 번 덧바르면 보다 생기 넘치는 핑크 립을 완성할 수 있다. 4.3g 3만6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이재민*



SHOWROOM

JEWEL & WATCH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틀로 17호 45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오메가는 최초 달 착륙 미션 45주년을 기념하는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틀로 17호 45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세라골드™ 타키미터 스케일을 장착한 블루 세라믹 베젤 링이 특징이며, 다이얼 위에 로고와 핸드, 그리고 인덱스를 18K 옐로 골드 제작했다. 문의 02-511-5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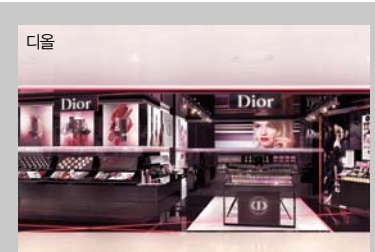
리처드 밀 아트 & 엘레강스 리처드 밀 2017 개최 리처드 밀은 쉽게 보기 힘든 콘셉트 카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트 & 엘레강스 리처드 밀'을 개최했다. 리처드 밀의 주요 이벤트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샹티이 고성에서 진행되었으며, 브랜드의 파트너들과 함께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의 02-512-1311

롤렉스 공식 판매점 현대시계 매장 리뉴얼 오픈 롤렉스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에 위치한 공식 판매점인 현대시계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리뉴얼된 매장은 기존 매장보다 더 넓고 프라이빗한 쇼핑 공간을 갖추었으며, 고객들이 여유롭고 품격 높은 쇼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문의 02-567-8195

티소 슈랑 데 무벨 헬베티 프리드 스페셜 에디션 티소는 스위스 르로르 거리에서 영감을 받은 슈랑 데 무벨 헬베티 프리드 스페셜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스위스 메이드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남성용 모델과 은은한 광채와 섬세한 디자인이 특징인 여성용 모델로 출시하며,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파워맷릭 80 무브먼트를 장착해 현대적인 감각과 최상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문의 02-6370-4068

샤넬 코코 크리쉬 브라이덜 컬렉션 샤넬은 세밀한 퀼트 패턴을 바탕으로 탄생한 코코 크리쉬 브라이덜 컬렉션을 공개했다. 심플함 사이로 과감한 시도와 모던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컬렉션은 샤넬 화인 주얼리의 근본적 가치인 정교한 세련미를 유감없이 표현했다. 문의 080-200-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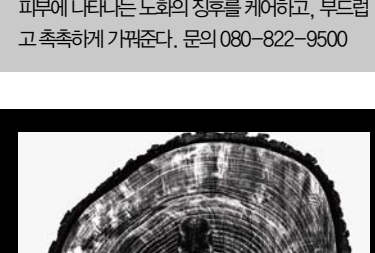
BEAUTY



디올 디올 백스튜디오 디올은 백스튜디오 메이크업 트렌드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디올 백스튜디오' 스튜디오를 서울에 최초 오픈한다. 디올쇼의 파세-니블한 에너지를 담은 다양한 경험과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 이템도 선보인다. 문의 02-772-3222

샤넬 라 크렘 망 샤넬은 1927년 마드모아젤 샬리 개발한 핸드크림에서 영감을 받은 '라 크렘 망'을 선보인다. 손과 네일을 위한 완벽한 케어 제품인 라 크렘 망은 물에 매끈하게 마모된 조각들 같은 인체 공학적 패키지가 특징이다. 환절기, 건조해진 손을 샤넬의 라 크렘 망으로 부드럽게 관리해보자. 문의 080-332-2700

프레쉬 크림 양시엔스 수퍼미 아이 세럼 프레쉬는 청정한 수도원에서 빛내주는 피부에 생기를 선사하는 '크림 양시엔스 수퍼미 아이 세럼'을 출시했다. 함유된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눈가 피부에 나타나는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준다. 문의 080-822-9500



동페라논 P2 2000 동페라논은 두 번째 절정기를 맞은 강렬하고 활기가 넘치는 샴페인 'P2 2000'을 출시한다. 동페라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은 P2 2000은 오랜 기간에 걸친 숙성을 통해 활기와 아삭아삭함, 밀도가 더해져 더 생기 있고 깊이 있는 풍미를 선사한다. 문의 02-547-2324

LIFESTYLE

FASHION



브룩스 브라더스 헤링본 스포츠 코트 브룩스 브라더스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한 '헤링본 스포츠 코트'를 출시한다. 이탈리아산 램스 울과 캐시미어 혼방으로 제작해, 부드럽고 신축성이 뛰어나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스포츠 코트를 찾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2052-8822

유로운 수납공간과 사이드 지퍼, 드로스트림 디테일로 실용성을 더했다. 트랜디한 감성의 리카르도 백팩은 2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252

브루넬로 쿠치넬리 타페타 다운 재킷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스포티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밀리터리 무드의 타페타 다운 재킷을 선보인다. 최상급 구스 다운을 사용해 가볍고, 방수 가공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부드러운 실루엣과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타페타 다운 재킷으로 멋스러운 룩을 완성해 볼 것. 문의 02-3448-2931

아.테스토니 2017 A/W 남성 토트백 아.테스토니는 부드러운 송이재질을 사용해 고급스러우면서 빈티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빅 사이즈 남성 토트백을 출시했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튼튼한 핸들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높였고, 내장된 스트랩으로 3가지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어 비즈니스 백이나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문의 02-3438-6271

몽클레르 캐러멜 렌즈 몽클레르는 부드러운 캐럴 컬러로 완성한 캐러멜 렌즈 컬렉션을 공개했다. 단열 처리한 니플론 소재와 울, 캐시미어 등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아우터 웨어가 특히 눈에 띄는 이번 컬렉션은 더블브레스트 코트와 무튼 코트, 더블코트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4-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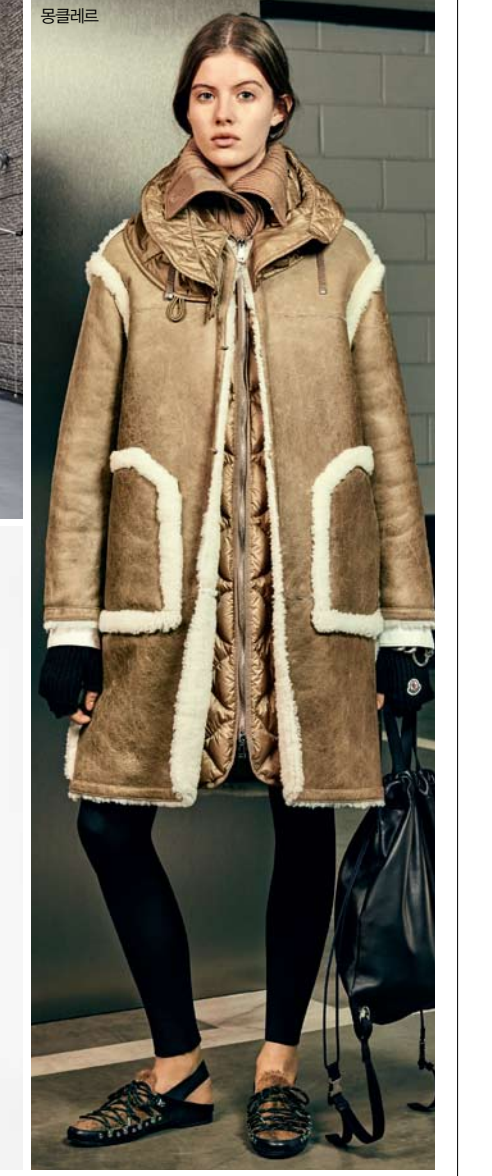
아이그너 아말리아 백 아이그너는 전년의 버튼 클로저가 돋보이는 아말리아 백을 공개했다.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심플한 디자인과 기방 정면에 배치한 금속 A 로고가 특유의 세련미를 자아낸다. 캐주얼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룩에 잘 어울려 데일리로 추천한다. 문의 02-546-7764

에르메스 When Two Galaxies Merge 에르메스는 작가 앙리외의 개인전,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만나는, 혹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나는 순간에 관한 특별한 전시인 <When Two Galaxies Merge>를 개최했다. 이들에게 에르메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앙리외가 제안하는 전시장 속 다양한 오브제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2-544-7722

올리버 피플스 라모어 컬렉션 올리버 피플스는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모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1970년대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은 오버사이즈 파일럿 셔츠와 클래식 혹은 미러 컬러의 플랫 렌즈를 적용해 모던하면서 트랜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문의 02-2144-6421

랑방스포르 리카르도 백팩 랑방스포르의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리카르도 백팩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탈리아산 가죽에 고급스러운 패턴을 적용해 스포티한 무드를 완성했으며, 여

살바토레 페라가모 플레인 웨이브 이브닝 슈즈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우아한 매력을 뽐내는 플레인 웨이브 이브닝 슈즈를 출시한다.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자극적 한자적이며 미니멀리즘적인 무드 오리지널 F 웨이브를 새롭게 재해석한 이 슈즈는 유행을 타지 않는 색채를 통해 예지 있고 화려한 룩을 연출해준다. 문의 02-3430-7854



The Art of Blend
마치 연금술사의 실험실을 연상케 하듯 엄선된 소재의 유니크한 조합을 담은,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2017 F/W 남성 컬렉션. 우아한 색감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특유의 이탈리아 감성을 배가했다.

이번 F/W 남성 컬렉션에서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캐주얼부터 사티orial, 뉴트럴에서 컬러풀에 이르기까지, 고급 원단과 다양한 소재의 정제된 결합에 숙련된 장인의 기술이 합쳐진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조합을 만들었다. 먼저 편안함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캐주얼 사티orial은 부드러운 핏에 더욱 가볍고 유연한 라인을 더해 탄생시켰다. 아우터와 다운 재킷에 반영된 모던 실루엣과 단조롭던 기존 팬츠 디자인에 플라즈마 디테일과 빅 포켓 등 새로운 스타일의 볼륨을 더한 것. 외형적으로 스포티한 형태에 가미된 것지만, 재킷의 핏감과 약간 두드러진 숄더 라인은 사티orial의 우아함을 보여준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컬러 팔레트와 니트 아이템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정의한 니트의 특징은 바로 풍부한 컬러 표현이다. 이번 시즌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선택한 컬러는 생기 있으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은 옐로우, 레드, 그리고 옐로. 모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와 강렬한 색조에 중점을 두었고, 그레이, 브라운, 벤틀 및 블루 컬러의 기본 색조는 이번 시즌의 새로운 컬러로 강조된다. 여기에 스웨터는 서로 다른 스킨치, 바이컬러 솔더와 스트라이프, 아가일 패턴, 그리고 대조되는 디테일이 돋보인다. 니트 웨어는 여유 있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에 이번 시즌 새롭게 제안하는 부드러운 핏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돋보이는 건 역시 '소재'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컬렉션의 디테일, 원사, 소재에서 열정을 발산한다. 최고급 캐시미어 섬유와 세련된 울 소재, 그리고 부드러운 베이비 알파카는 물론 활동성을 고려한 경량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 이번 시즌에는 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스포티한 요소와 포말한 기존 사이를 오가는 다채로운 아우터 웨어 디자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비즈니스 룩부터 워크엔드 스타일까지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2017 남성 F/W 컬렉션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창당동에 위치한 브루넬로 쿠치넬리 매장을 방문해보자. 문의 02-3448-2931 **에디터 이자현**

